

미확인 비행체를 뜻하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s)는 우리에게 「비행접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비행접시는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일 것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최근에도 비행접시가 나타났다는 보도는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에 나타나고 있다. 비행접시를 목격하였다는

그것이 레이더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행접시가 앉았었다고 하는 자리에 흔적이 있거나, 방사선의 농도가 늘어어나거나,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하는 일이 전연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접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 각국에 수십만명에 이르고, 비행

에서는 공군에 의뢰해서 자료를 분석케 하고 관련학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콜로라도대학에 설치하고 비행접시의 청체를 파악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도 미궁에 빠진 상태로 남아 있다.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을 다녀오고 여러 종류의 우주선이 태양계 안의 천체를 살살이 탐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계인에 의해서 탐사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어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행접시에 관한 천문학자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다. 많은 수의 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안에 고등문명을 가진 생명체 수는 1백만개는 되리라는 추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은하계의 1천억개의 별 모두를 탐사하려면 각 문명체가 10만개의 비행접시를 만들어야 태양계에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질텐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양계는 결코 특수한 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추산하는 수보다 더 많은 고등문명체가 있고 우리 지구인은 그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UFO, 즉 비행접시의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결국 21세기의 과제로 넘겨져야 할 처지에 있다. **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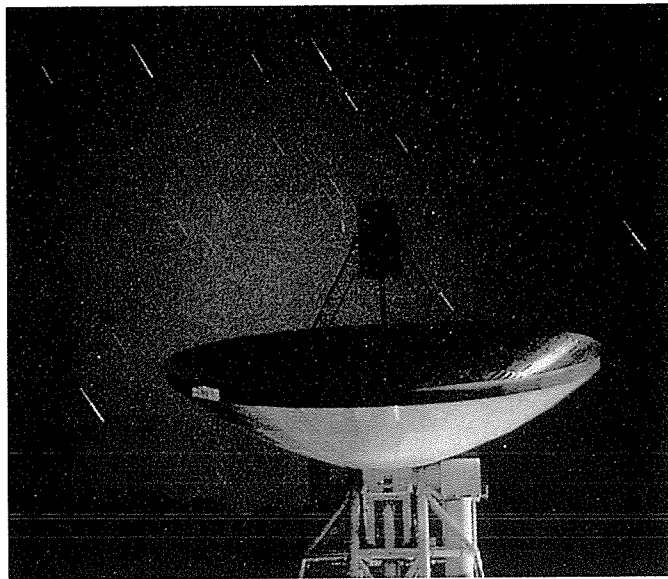
UFO

「비행접시」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체 과학적 근거없이 21세기의 과제로 넘겨

사람들에 따르면 “비행접시 여러 대가 편대를 지어 나타났다. 비행접시에서 나온 괴물에 이끌려 비행접시 내부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받았다. 비행접시에서 나온 코와 귀가 뽀족하고 은빛의 옷을 입은 외계인을 보았다”는 등의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되고 현장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행접시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비행접시라고 하는 사진은 제시되고 있지만

접시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전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수에 이르



◇우주의 지적 생물을 찾는 미국의 SETI 계획에 사용하고 있는 골드스턴 전파망원경

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나라의 정부와 과학자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